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간식은 호산나 목장과 사명애 집사님이 섬겼습니다. 다음 주일(5/22) 점심은 에스터 목장(오효근 권사)에서 섬깁니다.
3. 오늘은 여성교회 주관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엽니다. 생활용품, 의류 등 교우들의 섬김과 여성교회의 헌신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4. 오늘은 '목장주일'입니다. 1부예배는 없습니다. 2부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목장모임을 가지고 목자들은 목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코로나19 위로 전교인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장로님들이 후원하셔서 삼겹살 파티와 함께 족구게임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당회 결의에 따라 돌아오는 6월 첫째 주(6월 5일)부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쉬었던 '주일오후찬양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종전대로 전교인 식사 후인 오후 1시 30분입니다.
6. 6월 '월삭새벽기도회'는 이번 주 6월 1일(수)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 담당 \ 날짜 | 5월 29일 | 6월 5일 | 6월 12일 | 6월 19일 |
|-----------------|-----------------------------|--------------------|------------------|-------------------|
| 예배기도(2부) | 이준화 집사 | 신재준 집사 | 이강정 장로 | 김수환 장로 |
| 예배기도(오후) |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 | | |
| 주일간식담당(점심식사 No) | 호산나 목장 사명애 집사 | 에스터 목장 (오효근 권사) |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 헝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2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오순옥 집사, 김경미 권사, 조남희 집사, 김학성 집사 등)
3.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협동목사 : 김진희 ■ 전도사 : 박일선, 김진규, 구은세
 ■ 시무장로 : 유중열 ■ 협동장로 : 신태식, 김윤식, 서동운, 윤형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 | |
|---------|--|-----|
| *예배로 부름 | | 인도자 |
| *성시교독 | 교독문 37번(시 91:1-4, 7, 11, 14) | 다같이 |
| *경배찬송 | 69(통 33장) | 다같이 |
| *참회기도 | | 다같이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양과 기도

| | | |
|------|------------------------|--------|
| 찬송 | 91장(통 91장) | 다같이 |
| 대표기도 | | 이준화 집사 |

봉헌과 말씀

| | | |
|----------|------------------------|--------|
| 성경봉독 | 출 15:22-27 | 인도자 |
| 자녀를 위한기도 | | 인도자 |
| 봉헌기도 | | 인도자 |
| 말씀선포 | ‘광야길’ | 허영진 목사 |

친교와 축복

| | | |
|------|--------------------------|--------|
| 교회소식 | | 인도자 |
| *결단송 | 438장(통 495장) | 다같이 |
| *축도 | | 허영진 목사 |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주일’로 인해 주일오후예배는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5:3-12 ‘금훔히 여기는 자의 복’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참 십을 얻는 길

살랑이는 봄기운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록의 푸름이 가히 압권입니다. 순환하는 계절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듯이 우리네 삶의 과정도 희노애락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론 물질로, 때론 질병으로, 때론 외로움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고’는 중노동으로 괴롭고 지친 것을 말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인생의 모든 고초와 애씀이 가져다주는 낙심과 절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 오라 하시며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요, 짐을 해결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꿈꾸던 모든 노력과 시도가 허망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근본적인 죄의 짐을 해결 받은 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 또다시 상하고 지친 짐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멍에를 바뀔 때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간의 시도는 짐을 없애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멍에를 바꾸는 것입니다. 짐과 멍에는 다릅니다. 짐은 수레에 실린 무게들입니다. 반면, 멍에는 소의 어깨에 메어서 짐을 끄는 도구입니다. 즉, 멍에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짐에 관심을 가진 이는 짐을 없애고 싶고, 그러면 실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세상에 그렇게 없앨 수 있는 짐은 없습니다. 멍에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 쉬라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속에는 근본적인 생의 변화를 위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섬김의 멍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섬김을 위한 것이고 섬길 때 참 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섬기는 것일 때 참 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꺼려질 때입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십을 얻는 길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